

백합 품목정보 및 수출동향

1. 백합

- 일본 원산으로 관상용으로 심어 기르는 여러해살이풀이다. 높이는 30-100cm이다. 비늘줄기는 편평한 구형으로 지름 4-7cm, 연한 황색이다. 잎은 잎자루가 없으며, 피침형으로 길이 10-20cm, 폭 5-20mm, 털이 없다. 꽃은 5-6월에 흰색으로 피며, 원줄기 끝에 2-3개씩 옆을 향해 달리고 나팔 모양으로 벌어진다. 향기가 좋다. 열매는 삭과, 장타원형이고 길이 5-10cm이다. 전국의 공원, 화단, 온실에 관상용으로 식재한다

□ 백합종류

나팔백합계	산백합계	하늘나리계	섬말나리계
			
- 나팔모양으로 옆을 향해 피고 꽃잎이 김 - 관상용 백합의 대표 - 서양에서 부활절에 많이 쓰여 부활절백합이라고도 함	-꽃이 깔때기 모양이고 옆을 향해서 피는 것으로 백합 중 꽃이 가장 큼 -산백합·사크백합 등이 있음	- 컵 모양의 꽃이 하늘을 향해 펴 - 스카시백합, 날개하늘나리 등이 있음	-종 모양의 꽃이 아래를 향해 펴 -울릉도에 자라는 섬말나리와 응당나리 등이 있음

2. 백합의 재배

① 번식: 실생·포기나누기·살순번식·비늘잎꽃이 등으로 번식한다. 종자는 10월 중·하순에 온실에서 씨를 뿌리고 13~15℃로 유지하면 30일 만에 싹이 나며 3월 하순에 잎이 3~4장 나온다. 보통 3년 정도 키워야 꽃이 핀다.

비늘잎꽃이는 7~8월에 알뿌리의 비늘잎을 떼어 심는 것으로 40~60일 만에 작은 알뿌리가 생긴다.

살순번식은 잎겨드랑이에 생기는 눈을 가을에 심어서 싹이 트면 알뿌리를 이루게 하는 방법이다.

포기나누기는 알뿌리나누기라고도 하는데 백합 번식의 주된 방법으로서, 2~3개씩 나오는 새 알뿌리를 떼어심는다.

② 휴면타파: 이를 위해서는 저온처리를 해야 하는데 보통 1~7℃에서 6주간 처리한다. 저온처리 중에는 알뿌리 안에 있는 생장호르몬의 형태와 양이 변화하여 휴면이 타파되고 자라는 것으로, 휴면이 타파되면 꽃눈분화[花芽分化]가 끝나고 싹이 트면 장일(長日)에서 개화가 빨라진다.

보통 물이끼와 알뿌리를 섞어 상자에 넣고 1~7℃에 6주간 두었다가 꺼내서 14~15℃에서 1주일 말린 다음 충분히 물을 뿌려 싹을 틔운다. 싹이 나오는 것은 20일 정도 걸리며 싹이 나면 제대로 옮겨심는다.

3. 수출동향

○ 수출실적

(단위 : 톤, kg)

구분	'12 수출금액	'13 수출금액	'14 수출금액	'14.8월 (~6.30)		'15.8월 (~6.30)		증감률	
			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
전체	30,090	19,876	12,309	600,807	4,597	510,804	3,850	-14.98	-16.24
일본	30,067	19,864	199	599,172	4,590	510,096	3,843	-14.87	-16.27
러시아	19	5	181	175	2	218	4	24.57	50.0
우즈베키스탄	-	-	-	-	-	228	2	-	-
몽골	4	7	86	1,460	5	262	1	82.05	-80.0
중국	-	-	5	-	-	-	-	-	-

○ 백합수출동향

- 전년대비 화훼류 수출 물량 및 실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, 주요 감소 원인은 백합 주요 수요국인 일본 엔저에 따른 생산 감소로 파악됨
